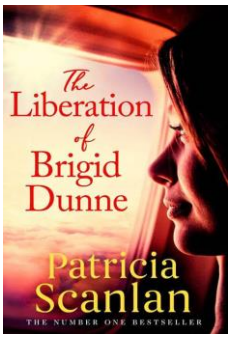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LIBERATION OF BRIGID DUNN
가제 : 네 자매 이야기
저자 : Patricia Scanlan
출판사: Simon & Schuster UK
발행일: 2020년 4월 30일
분량 : 528 페이지
장르 : 문학



*** "이 훌륭한 이야기 전반에 따스한 온기와 반짝이는 빛이 흐르고 있다."- 아이리시 북어워즈 수상자, 작가 마리안 키스**

*** 신선하고 재미있는데다가 정교한 심리묘사가 인상적인 소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잘 다룬 소설이다. - 「아이리쉬 인디펜던트」**

마리 클레르는 다시 고향인 아일랜드의 포 윈즈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가 되어있었다. 오래된 집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고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가 도착한 소리에 화들짝 놀란 그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꿈이었다. 애인인 마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 레코딩 사무소에서 깜빡 잠이 든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아일랜드가 아닌 머나먼 타국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다. 소파에서 일어난 마리는 우연히 한 젊은 여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고 그 젊은 여자가 마크와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리와 마크는 이 년째 사귀고 있었고 곧 뉴욕에도 새 사무소를 열 예정이었다. 충격에 빠진 마리는 더 이상 야심이니 경력이니 생각도하고 싶지 않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녀는 이모 할머니 브리짓의 여든 번째 생일 잔치에 맞춰 아일랜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마크에게 이별을 선고했다.

한편 마리의 엄마인 킬린은 남편과 함께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명상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킬린은 매일 일에만 미쳐 사는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딸에게 조언을 하기에 자신은 엄마나 이모에 비해 너무 보잘 것 없는 사람인 것만 같았다. 게다가 딸에게 말 못할 비밀까지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현명한 엄마 노릇을 할 자격이나 있는 지 의심스러웠다. 킬린은 오랜만에 브리짓 이모를 만날 생각에 잔뜩 흥분도 됐지만 동시에 엄마 이멜다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혔다. 이멜다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고약한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의 남편인 아망드를 못마땅해했다. 킬린은 그런 엄마를 사랑해보려고도 했고 그게 안되면 좋아해보려고도 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브리짓은 그즈음 파리 외곽에서 동료 수녀들과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었다. 브리짓 수녀는 원래 크리스마스를 썩 좋아하지 않았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매번 동료 수녀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자신에게도 남편과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수녀의 길을 선택한 건 브리짓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시 눈을 가진 여자는 아마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을 테니 차라리 수녀가 되라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고 그녀는 이제 모든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고 안전한 항구에 정착한 배처럼 평온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곧 있을 은퇴식을 마친 후에는 마침내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이제 동생 이멜다 하나뿐이었다.

이 네 명의 여성 중 유일하게 평생을 아일랜드에서만 보낸 이멜다는 며느리와 함께 한창 크리스마스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언니 브리짓의 생일을 위한 깜짝 파티에 시큰둥했다. 모두들 그녀의 언니를 성자라고 불렀지만 이멜다에게 언니는 자신을 병든 부모와 함께 시골 농장에 남겨두고 자기만 홀랑 떠나버린 원망스러운 사람일 뿐이었다. 가족 모임이라고 모여봤자 자식들은 그녀를 불편해할 것이고 그나마 가장 좋아하는 마리마저 없는 자리일 테니 그녀 역시 그 모임이 그리 달갑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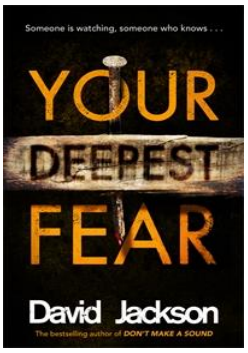
마리는 가족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아일랜드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마리를 반기고 기뻐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네 명의 여자들이 모두 포 윈즈 마을에 모였다. 드디어 브리짓의 생일 파티가 열렸고 켈린이 걱정한 것과는 달리 모든 것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흘러 가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모두들 브리짓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듯한 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이멜다는 갑자기 분노를 터트리며 브리짓의 과거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이멜다는 조니 라킨이라는 동네 남자와 브리짓 언니가 은밀한 만남을 가지는 것을 보았다며 언니는 순결 서약을 어긴 위선자라고 마구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킬린의 남편이자 마리의 아버지인 아망드가 사제인 신분으로 켈린을 임신시켰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결국 이멜다가 마침내 이 지옥의 문을 연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교회의 역할과 아일랜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의와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소설 속 네 명의 여자 주인공들이 바로 이 혼란기 속 아일랜드 여성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한 가문의 여자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지나간 세월에 숨겨져 있던 비밀과 아픔을 마주하며 벌어지는 가족 소설이자 아일랜드 여성들에 관한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긴 소설이다.

<저자 소개>

패트리샤 스칸란 (Patricia Scanlan)은『Apartment 3B 』 『 Finishing Touches』 『 Foreign Affair』등을 포함해 20권이 넘는 여러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다.

제목 : YOUR DEEPEST FEAR
가제 : 믿지 마
저자 : David Jackson
출판사: Zaffre
발행일: 2019년 5월 16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스릴러이다. '손에 절 대 놓을 수 없는 책'을 쓰는 작가 중 데이비드 잭슨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한다."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조아나 캐논**

고향 코펜하겐에서 막 영국 리버풀로 돌아온 사라 프라이어는 사무치는 후회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쉽게 매튜의 손을 놓아버린 것은 아닌지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튜와 별거를 하기로 한 선택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매튜는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매튜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어야 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까지도 말이다. 그랬던 매튜에게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지만 모든 걸 나눈 아내 사라에게 끝끝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던 사라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 메시지들을 차례로 확인하던 중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 매튜가 남긴 음성메시지를 들은 것이었다. 매튜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목소리로 '빅토리아', '알버트'라는 이 두 이름을 기억하라며 그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누가 전화기를 뺏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메시지는 끊겨버렸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매튜는 답이 없었다. 별거 후, 매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도 가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결국 그녀는 뒷마당을 통해 매튜의 집에 들어갔다. 방 온 곳에 물건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고 서랍이란 서랍은 죄다 열려있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유리를 깨고 들어온 흔적까지 있었다. 두려운 마음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가라 앉히고 방문 하나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매튜의 시체를 보았다. 매튜는 알몸인 채로 전신에 못이 박혀 바닥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사관 네이슨 코디는 최근 큰 일을 겪고 병원에서 휴가를 보내다 막 복직한 상태였다. 그는 이 일이 치정사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사라의 알리바이는 너무나도 확실했다. 게다가 범인은 못을 치명적인 급소에 박지 않고 팔, 다리 같은 부분에 박은 것으로 보아 분명 매튜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기를 바란 것 같았다. 또한 어질러진 집의 흔적들을 보아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었고 아마도 이 집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들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매튜를 고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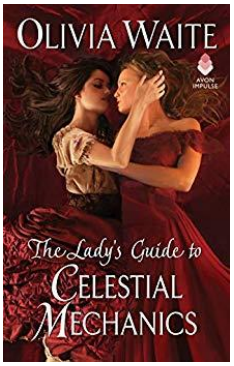
사라는 네이슨과의 인터뷰에서 매튜는 지나치게 예민한데다가 사적인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둘은 결혼한지 삼 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둘은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긴 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완벽한 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갑자기 매튜가 사라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게 되면서 결국 별거를 선택한 것이었다. 별거 후에도 사라는 자주 매튜를 찾아갔지만 둘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네이슨은 사라와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남편을 잃은 사람치곤 너무나 평안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사라가 매튜의 메시지를 받고도 바로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혼자 벽을 타고 매튜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왠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반면에 사라는 자기가 한 '과감한' 행동이 자신이 남자였다면 전혀 이런 의심을 받을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네이슨을 나무랐다. 사라는 단지 매튜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서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사라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사 중 사라가 덴마크에서 군인으로 복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무 했던 살인 병기였던 것이다. 여러모로 사라는 네이슨의 예상을 자꾸 벗어나는 여자였다.

조사가 끝난 후 사라는 처음 리버풀에 도착했던 그날 매튜와 구경하고 다녔던 곳들을 다시 가보았다. 그때 사라는 불현듯 매튜가 한 부두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말해 준 것을 떠올렸다. 그 부두는 앨버트 왕자의 이름을 딴 '앨버트 부두'였다. 매튜가 말한 이름 중 하나인 앨버트는 어쩌면 그 부두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다. 사라는 앨버트 부두까지 어떻게 갔었는지 곰곰이 되새겨보았다. 그녀는 매튜와 앨버트 부두로 가는 길에 빅토리아 여왕 조각상을 봤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사라는 그날 매튜와 돌아다녔던 경로를 되짚어보면 사건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라는 그 다음 행선지였던 도서관에서 매튜가 자신에게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서 매튜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을 경찰에 알리면 사라조차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만약 그들이 그녀를 찾아오면 그들에게 '메트로'라는 이름을 알려주라고 했다. 사라는 매튜가 자신에게 남긴 숙제를 스스로 풀기로 결심했다. 오랫동안 전장을 떠나있던 사라는 다시 잔인한 폭력이 가득한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들'은 과연 매튜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려고 한 걸까? 매튜가 남긴 수수께끼가 하나씩 풀려가면서 인간의 어둡고 잔인한 민낯이 드러나는 흥미진진한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데이비드 잭슨 (David Jackson)은 『Cry Baby 』의 저자이다. 주로 미스터리와 범죄 소설을 쓰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제목 : THE LADY'S GUIDE TO CELESTIAL MECHANICS
가제 : 수 많은 별들 중에서
저자 : Olivia Waite
출판사: Avon Impulse
발행일: 2019년 6월 2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시대적 배경에 꼭 맞는 감미로운 향신료를 더한 달콤한 레즈비언 로맨스."- 「라이브러리 저널」**

1816년 영국, 루시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전 연인인 프리실라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프리실라는 할머니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루시는 그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는 동성 연인이었다. 프리실라는 사랑하는 연인 루시보다 더 안정된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루시는 어릴 때부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끌렸다. 루시 역시 혼자 늙어 죽지 않으려면 아무 남자하고 그냥 결혼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잠시 고민해봤지만 루시는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여자가 아니란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루시는 언제나 남자들의 그늘 뒤에서 늘 2등 시민처럼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했다. 오빠는 예술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방 곡곡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루시는 언제나 집안 살림을 돌보며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 오빠마저 집을 비우고 완전히 홀로 남게 된 루시는 모스 백작 부인이 보낸 편지를 발견했다. 이 백작부인은 천문학자인 남편과 함께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일식과 월식을 연구하며 새로 발견한 과학적 사실들을 천문학자인 루시의 아버지에게 서신으로 알려주었던 사람이었다. 백작 부인은 편지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해 한 프랑스어 원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줄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 책은 뉴턴 이래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천문학자가 쓴 책이었고 루시가 이 덕분에 푼돈이라도 벌어온다면 오빠도 루시의 뜻을 꺾으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루시의 돌아가신 아버지 역시 명망 있는 천문학자였고 루시 또한 아버지의 연구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천문학적 지식에 해박한 사람이었지만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천문학자가 될 수는 없었다. 루시는 이 일이야말로 자신을 이 동굴에서 꺼내 줄 유일한 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 시간 만에 짐을 싸서 백작 부인을 만나기 위해 런던으로 떠났다.

모스 백작 부인, 캐서린 역시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도 없이 홀로 저택에 남아 있었다. 캐서린 또한 자신에게 남겨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과학적 업적을 완수하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평생 자신이 누군가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보조자 역할만 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자신의 연구 외엔 다른 것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아내인 캐서린이 자신의 연구에 바친 헌신과 공로를 한번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캐서린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등 뒤에 서 있는 조수가 아닌 자신만의 일을 찾고 싶었다. 바로 그 시점에 루시가 그녀를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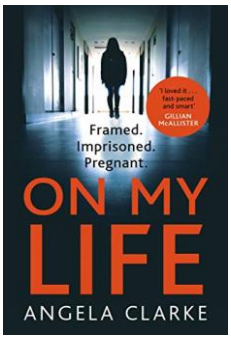
캐서린은 지난 십 년간 루시와 오직 서신으로만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이렇게 실제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루시는 캐서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고 그녀가 무려 열다섯 살 때부터 자신에게 답신을 보낸 사람이란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캐서린은 아름답고 당당한 루시를 보자마자 어딘 가에서 경고음이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왜 편지로 답하는 대신 직접 이렇게 찾아왔는지도 내심 궁금했다. 루시가 그녀에게 번역 일을 직접 맡고 싶다고 고백하자 그제서야 캐서린은 루시의 몸에서 뿜어내고 있는 그 의문의 빛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루시가 학문에 대해 가진 야심과 열정이 내뿜는 빛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캐서린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루시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루시가 저명한 천문학자였던 아버지의 연구를 도우며 왕립 학회 천문학자들만큼이나 뛰어난 과학적 지식을 습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왕립 학회 회장 하울리에게 루시를 소개했다.

루시는 누구보다도 학문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립 학회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여자인 루시를 비웃었고 과학계에는 여성이 필요 없다고까지 말하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루시는 얼마나 오랫동안 천문학계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과학적 업적을 일부러 지워버리고 도외시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루시는 캐서린의 저택에서 머물면서 개인적으로라도 번역 일을 마치고 싶었다. 그녀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일이 아닌 세상에 새로운 지식을 알리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새 루시는 캐서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고 그녀의 기품 있는 모습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캐서린 역시 자기도 모르게 루시에게 끌리고 있었고 그렇게 둘은 점점 서로가 가진 지성과 열정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 루시는 낮에는 하루 종일 프랑스어를 번역하는데 전념했고 밤이면 캐서린과 밤새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당시 동성간의 사랑은 금기시된 일이었고 캐서린은 루시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건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리고 레즈비언이셨던 고모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이 모든 일이 더욱 두렵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캐서린은 가부장적인 남편과의 사랑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루시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섬세한 루시는 모든 면에 있어서 먼저 캐서린의 동의를 구했고 그건 둘이 사랑을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루시는 캐서린과는 달리 늘 세상의 편견과 불의에 맞서려는 용기를 가진 여자였다. 캐서린은 그런 루시를 바라보며 점차 용기를 얻게 되었다. 캐서린은 여태껏 믿고. 듣고, 생각해왔던 모든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고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 소설은 이전의 퀴어 소설과는 달리 특유의 신파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 여성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사회의 편견과 가부장적 질서에 맞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또한 시적 묘사로 가득한 아름다운 로맨스 소설이기도 하다.

<저자 소개>

올리비아 와이트 (Olivia Waite) 역사 로맨스, 판타지, 공상과학 작품을 주로 쓰고 있으며 연애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ON MY LIFE
가제 : 살인자 엄마
저자 : Angela Clarke
출판사: Mulholland Books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36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미스터리를 중심으로, 감옥에서 펼쳐지는 압도적이고 생생한 이야기"-『Thirteen』의 저자 스티븐 가버너**

제나의 몸은 에밀리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손으로는 에밀리의 머리를 안고 있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는 코코넛 샴푸냄새와 젖은 금속의 냄새가 나고 있었다. 약혼자인 로버트는 실종 상태였고 그녀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제나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단 하나뿐, 이 모든 일을 벌인 사람이 결코 자신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제나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였고 일 때문에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로버트는 재력과 성품까지 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랑스러운 남자였다. 그녀는 로버트만큼이나 그의 딸 에밀리를 사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그 둘 다를 한꺼번에 잃었고 슬픔에 빠질 겨를도 없이 극악무도한 살인 용의자가 되었다. 제나가 자신은 절대 살인범이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집 부엌에서 로버트의 혈흔까지 발견되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녀는 하루 아침에 약혼자 로버트와 그의 딸 에밀리를 죽인 살인범이 되었다. 마지막 재판이 있던 날 제나의 얼굴 위로는 수 많은 카메라 플래시들이 터졌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들을 마구 쏟아냈다. 어마어마한 군중 속에서 들리는 반가운 목소리는 오직 여동생 네스의 목소리뿐이었다. 울부짖는 네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제나는 그렇게 교도소로 가는 밴에 올라탔다.

교도소는 그야말로 무법 천국이었다. 교도관들은 제나를 난폭하게 대했고 남자 교도관들의 성희롱은 일상다반사였다. 그곳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었다. 그녀는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말에 복종해야 했고 교도관들의 지시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밀실 공포증이 있는 제나에게 감옥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다. 24시간 내내 끊이지 않는 소음이 제나의 귓속을 파고 들었고 사생활이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그곳은 제나가 뉴스에서만 보았던 흉악범들로 가득했다. 낯익은 얼굴을 만날 때면 제나는 그 사람이 저질렀던 끔찍한 살인 수법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그 흉악범들 사이에서도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수감자들은 아이를 죽였다는 제나를 경멸했고 잔인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교도소 사람들은 그녀를 '금발의 살인자'라고 불렀다.

어느 날 경찰들이 제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제나는 분명 그들이 로버트와 관련된 소식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오히려 제나에게 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제나는 다시 한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어쩌면 이 사건이 강도 사건일지도 모른다고 경찰들에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그 집에서는 그 어떤 외부인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답한 말들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더 충격적이었다. 제나의 노트북에서 학대당한 아이들의 사진과 아동 대상 성범죄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경찰들은 그날 에밀리는 생리가 시작되는 바람에 원래 가기로 했던 수영 수업에 가지 않고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들의 추측은 이러했다, 집에 도착한 에밀리는 그 때 마침 집에서 그 불법 영상물을 보고 있던 제나를 발견했고 제나는 그 일로 에밀리와 싸우다 에밀리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때마침 도착한 로버트가 그 광경을 보는 바람에 제나가 로버트를 죽였을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였다. 또한 경찰은 제나가 로버트의 시신을 어딘가 숨기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에밀리의 숨이 아직 붙어 있었고 에밀리가 그 때 경찰에게 신고를 했지만 결국 숨을 거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제나는 경찰들의 추론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재차 항변했지만 그들은 면회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로버트의 시체가 어디 있냐며 제나를 추궁했다.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로버트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 제나는 더 이상 경찰과 사법기관에 이 일을 맡기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매일 매일 감옥에서 이 사건을 되짚어보았다. 범인은 분명 제나와 로버트, 에밀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감옥 생활 중,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감옥 밖에 있었으면 너무나 기쁠 일이었지만 임신한 여자로 감옥에 사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다. 처음부터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찰리는 그녀를 죽이겠다고 계속 협박 중이었다. 찰리는 어쩌면 진짜로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죽이려고 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동료 죄수인 켈리를 떠올렸다. 켈리 역시 임산부였다. 하지만 켈리가 아이를 낳으면 법에 따라 아이를 정부에 넘겨야만 했다. 에밀리는 아이를 갖게 되자 감옥에 있다는 현실을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제나는 감옥에서 부도덕한 교도소의 섭리와 무능한 사법부 체계의 민낯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속에서도 물론 켈리라는 동료 죄수를 만나 감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중한 친구를 만났지만 출산 후 아이를 빼앗긴 켈리마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제나는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 중 한 사람이 오랫동안 자신을 질투해왔고, 믿었던 아버지마저 과거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로버트는 어디에 있는 걸까? 대체 누가 에밀리를 살해한 것일까? 평생 안전한 울타리라 믿었던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안젤라 (Angela Clarke)는 소설 작가이자 극작가, 칼럼니스트이다. 그녀의 첫 소설 『Follow Me 』는 2016년 1월 아마존이 뽑은 '이달의 데뷔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NON-FICTION

제목 : ESCAPE MANUAL FOR INTROVERTS
가제 : 소심人을 위한 일상 속 비상 탈출법
저자 : Katie Vaz
출판사: Andrews McMeel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9월 5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처세

현대인들의 삶은 외향적인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일명 사회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맥을 쌓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모임과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외향적인 사람들한테는 이 일이 그래도 좀 수월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고문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 시끌벅적한 세상에서도 제정신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초대받았을 경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을 초대한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늘 초대를 거절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미리 생각해 둬야 하고 어느 곳에 가든 언제 그곳을 벗어나야 할지 영리하게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산다는 건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 저자 카티에 바스는 내향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도 이른바 사회생활이라는 그물망을 현명하게 벗어날 전략들을 이 책을 통해 소개한다.

이 책은 단순히 “난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때” 정도가 아닌, 살면서 마주치는 여러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영리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알찬 핸드북이다. 저자는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지침부터 터무니없이 독창적이기까지 한 여러 기술들을 소개한다. 먼저 우리 주요 인간 관계를 따져보자면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지인, 낯선 사람 등 5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관계적 특성상에 맞춰 대처법도 따로 세워야 한다. 이 책에 수록된 관계 별, 주제별 예상 시나리오들은 모두 저자 자신이나 저자의 내성적인 친구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아주 일반적인 상황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먼저 친구 관계일 경우, 친구가 만약 가볍게 저녁에 한 잔이나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가족 중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엄마와 약속이 있다거나 반려동물 혹은 애인의 이름을 대며 그들에게 통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며 집에 가봐야 한다고 둘러 대는 것이다. 또는 여러 명이 모이는 불편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면 그 장소에 혹시 반려동물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반려동물을 위한 장난감이나 간식을 챙겨가서 다른 사람들과 애써 어울릴 필요 없이 동물들과 바쁜 시간을 보내면

된다. 두 번째는 친척들과 같이 있을 때이다. 친척들과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요가 매트와 원터치 텐트를 가져가서 매일 하는 운동을 하러 간다는 핑계로 가족과 떨어져 자유시간을 보내면 된다. 셋째, 만약 직장에 화장실까지 쫓아와 수다를 떨려고 하는 동료가 있다면 화장실에 가기 직전 그 동료에게 아주 긴 메일을 보내 동료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유유히 화장실로 사라지면 된다. 넷째, 혹시 온라인 상에서만 아는 사이인 누군가를 슈퍼마켓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그를 피해 음악을 듣는 척하며 여유롭게 쇼핑에만 집중하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써온 쇼핑 리스트를 다시 되새기는 척하면 된다. 다섯째, 유난히 사교성 좋고 활기찬 수련생들로 가득 찬 요가 교실에 가서 멀뚱 멀뚱 바보처럼 앉아있고 싶지 않다면 '아기 자세 (무릎 꿇고 앉은 채로 바닥에 엎드리는 동작)'를 취하면 된다. 누가 봐도 그저 요가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어른이 되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 순 없게 된다. 때로는 어색한 모임에도 참석해야 하고 불편한 시간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모든 상황을 애써 견딜 필요는 없다. 다만 어느 모임에서든지 탈출하려면 그냥 무턱대고 그 자리를 박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인다운 처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친구나 가족관계에서는 더 노련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안내서는 내향인도 스스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들과 풍부한 삽화를 더해 읽는 재미까지 더한 현대 생활 안내 백서 같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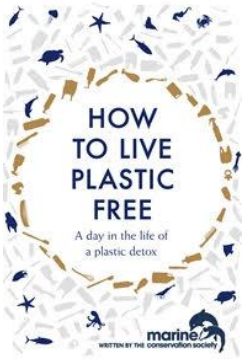
<목차>

1. 친구
2. 친척
3. 동료
4. 지인
5. 낯선 사람

<저자 소개>

케이키 바스 (Katie Vaz)는 뉴욕 로체스터 공과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고 독일 안할트 응용과학대학교에서 통합 디자인을 전공했다.

제목 : HOW TO LIVE PLASTIC-FREE
가제 : 플라스틱 제로 라이프
저자 : the Marine Conservation Society,
(Luca Bonaccorsi, Richard Harrington, Clare Fischer)
출판사: Headline Home
발행일: 2018년 6월 7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환경



*** 플라스틱 디톡스를 실천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안내서**

이제는 정말로 플라스틱 디톡스를 시행해야 할 때이다. 플라스틱은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처럼 바다로 퍼져나가고 있다. 북극해에서만 약 3 천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고 있고 날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때문에 발생한 질식,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이 조각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PCB, BPA 및 살충제와 같이 발암성 및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과 (우리의 호르몬 균형에서 암과 심각한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같은 독성 물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왔던 것과 달리 북극곰을 위협하고 있는 건 기후 변화뿐만이 아니다. 플라스틱 속 화학 물질은 동물들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생식 주기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암컷 곰은 수컷처럼 변하고 있고 수컷 곰의 성기 뼈는 쉽게 부서지게 되었다. 수세기를 살아남았던 동물들의 몸이 이 작은 조각들 때문에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류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영국의 해양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세 저자는 이 책이 플라스틱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우리 일상 생활을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여정에 관한 책이다.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면 아마도 온통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들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플라스틱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우린 정말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는 걸까? 다 쓴 플라스틱 제품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자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해보라고 조언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플라스틱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왜 내 음료에 빨대가 꽂혀있고 왜 샌드위치가 비닐에 싸여 있는지 뿐만 아니라 왜 커피, 포크, 샐러드, 칫솔과 치약, 샴푸, 어린이 장난감등 왜 이 모든 물건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지 말이다. 플라스틱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는 과연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자는 그저 자연의 섭리를 따르면 된다고 말한다. 자연에는 애초에 '쓰레기'라는 개념이 없다. 자연 세계에서는 물질의 크기와 상관없이 심지어 악취가 나는 물질이라도 다른 유기체 안에서 분해

과정을 거쳐 재생된다. 이렇듯 모든 물질의 잔해는 또 다른 물질의 원료가 된다. 하지만 끊임없이 인간은 끊임없이 독성 물질이 가득한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자연 친화적인 제품도 이전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태양 전지 패널, 풍차, 모바일 기술처럼 개발 도상국에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혁신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더욱 쉽고 간단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저자는 먼저 현대 사회에 만연한 소비주의를 지적한다. 단순히 기분을 풀기 위한 충동적인 마음 때문에 벌이는 구매 행위 하나 하나가 우리의 환경과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플라스틱 제로 라이프를 사는 것은 버거울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 슈퍼, 정육점, 빵집에만 가도 모든 물건이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지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까지 알려준다. 또한 각 장에서는 욕실, 주방, 사무실 등 우리 일상 생활 곳곳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중 플라스틱 대신 어떤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면 되는지 소개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은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책이 아니라 현명한 방식으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친절한 안내서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자각
제2징. 욕실
제3장. 아기들과 어린이들
제4장. 아침 식사
제5장. 사무실
제6장. 우편물 작업
제7장. 반려 동물
(이하 생략, 총 1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해양환경보호단체(The Marine Conservation Society)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영국의 비영리 기관이다.

루카 보나크로시 (Luca Bonaccorsi)는 저널리스트이자 환경주의자로 해양보존회의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이다. 리처드 해링턴 (Richard Harrington)은 해양생물학자이자 이 단체의 커뮤니케이션 부장이다. 클레어 피셔 (Clare Fischer)는 전 BBC 방송진행자이자 이 단체의 언론 담당자이다.

제목 : THE GOOD GIRL MYTH
가제 : 착한 여자
저자 : Majo Molfino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20년 8월 예정
분량 : 253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과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신화를 깨부수고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책**

이 책의 저자 마호 몰피노는 오랫동안 여성들을 위한 인생 코치로 일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너무나 뛰어난 능력과 야심을 가진 성공적인 여성들이 하나 같이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여성들은 자신이 가진 뛰어난 직감보다는 다른 이들의 권력에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보다는 오직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했다. 이 똑똑한 여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답은 바로 가부장제였다. 이 낡아빠진 시스템은 여성을 남성보다 하등한 존재로 치부하고 여성들을 억압하고 배제해왔다. 가부장제는 마치 공기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어떤 현명한 여자들도 이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여성들은 “착한 소녀”가 되도록 교육받았고 규칙을 따라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배웠다. 이는 성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이 있다.

가부장제는 여성이건 남자이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 안에도 이미 가부장제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가부장제의 유산은 외부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부장제는 여성들이 가부장제적 메시지를 스스로 내면화하도록 만들었다. 더 나아가 가부장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을 막아버렸다. 저자는 여성들이 자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가부장적 메시지가 결코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여성들이 어떻게 스스로 다섯 가지 끔찍한 신화 (규칙, 조화, 논리, 완벽 및 희생)를 내면화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 거짓된 신화가 여성들의 삶과 직장생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낸다. 저자는 자신의 주 고객이자 실리콘 밸리에서 활동 중인 최고 관리자, 창립자들이 겪은 일화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신화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저자는 ‘디자인 사고’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독자 스스로 그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틀과 실행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고충을 예로 들어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실행에 나서기도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여성에게 저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표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언제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여성들에게는 매일 자신부터 먼저 돌보는 의식을 해보라고 조언한다. 또는 상사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는 직장에서 대담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고 형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제안한다. 또한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수록된 부록에서는 여성들이 직접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거짓 신화가 무엇인지 스스로를 진단해보도록 한다. 저자는 독자들이 신화와 통념을 극복하고 새롭게 자신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감동적인 치유의 순간을 경험하게 해준다. 스토리텔링, 디자인, 심리학 및 마음 이론을 통해 여성들이 더 많은 힘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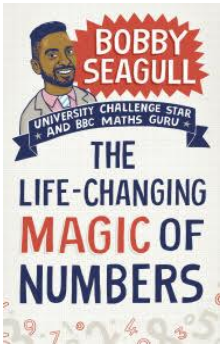
<목차>

작가노트
제 1 장: 착한 여자가 된다는 것
제 2 장: '착한 여자'라는 신화
제 3 장: 당신은 어떤 여자인가?
제 4 장: 규칙에 대한 신화
제 5 장: 완벽에 대한 신화
제 6 장: 논리에 대한 신화
제 7 장: 조화에 대한 신화
제 8 장: 희생에 대한 신화
제 9 장: 통합으로 가능 여정

<저자 소개>

마호 몰피노 (Majo Molfino)는 작가이자 연설가이며 여성 리더십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에어비앤비등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더 훌륭하고 창의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목 : THE LIFE-CHANGING MAGIC OF NUMBERS
가제 : 숫자와 사랑에 빠지다
저자 : Bobby Seagull
출판사: Virgin Books
발행일: 2018년 10월 25일
분량 : 288페이지
장르 : 교양



*** "바비는 아마도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수학 선생님일 것이다." -「가디언」**
*** 숫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어 줄 숫자 전도서**

이 책의 저자 바비 시걸은 2017년 영국의 한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숫자에 매료되어 있었다. 숫자는 모든 것이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축구에서도, 가장 완벽한 미를 추구하는 예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숫자로 풀어나가는 자신의 인생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수학을 알면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지 알려준다. 저자가 가진 수학에 대한 열정은 곧 우리에게까지 전염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꾸어 버릴 것이다.

저자가 맨 처음 숫자에 대해 강력한 이끌림을 느낀 건 다름 아닌 숫자를 셀 때부터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저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또래 친구들과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어린 시절 다른 친구들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그저 추측만으로 가장 훌륭한 축구 선수가 누군지 평가하고 있을 때 저자는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자신만의 '원 픽'을 꼽았다. 예를 들면 A 선수가 지난 시즌에서 총 열 다섯 골을 넣었다는 정확한 숫자를 대면서 자신의 주장에 확실한 근거를 더한 것이다. 초등학생 시절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서 저자는 골 실적은 물론 모든 경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선수들의 성과와 다음 경기의 결과를 예측해보는 실험도 해보았다. 저자는 엑셀 작업을 통해 얻은 수치를 기본 데이터로 삼아 선수들의 역량을 비교해보기도 했고 또래 친구들이 축구에 대해서 묻는 모든 시시콜콜한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는 소년이 되었다. 저자에게는 오늘날 옵타 스포츠 (Opta Sports) 같은 스포츠 데이터 분석 기업이 저자가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이런 수치들을 기본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저자는 숫자 덕분에 더 이상 추측에 기대지 않고 무언가를 확실히 '아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숫자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들의 존재들을 알게 되었고 올림픽 경기에서 한 인간이 초당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지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인식하게 되면서 인간의 신체가 가진 위대함과 비범함에 대해 새삼 전율하기도 했다. 숫자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었고 숫자를 통해 모든 것이 분명해질 수 있었다. 저자는 일찍이 교과서를 벗어나 진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숫자들을 동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숫자가 뭐가 그리 중요하며,

대체 숫자로 뭘 할 수 있냐고 물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숫자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물론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많고 적음에 대해서 구분은 하지만 인간처럼 정교하고 섬세하게 수치를 따지고 계량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오직 인간 뿐이라는 것이다. 일부 소수 민족들은 107 이하의 숫자 범위 안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류는 덧셈, 뺄셈, 곱셈 및 나누기 등 간단한 산술 연상을 통해 숫자라는 추상 개념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인간은 숫자를 이용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록하고 미래까지 예측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숫자는 마술 쇼, 랩 가사. 피트니스, 음식부터 시작해 저 멀리 우주에서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숫자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는 숫자에 대한 사랑 고백이 담긴 에세이이자 교양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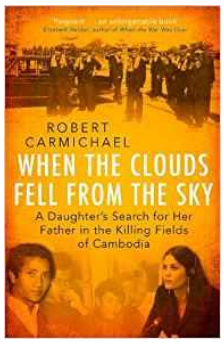
<목차 소개>

제 1장. 하나, 둘, 셋, 세는 것만큼 쉽다.
제 2장.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또 다시 시도해보라.
제 3장. 조금 더 조금 더 모아 보자
제 4장. 이건 마법 같은 일이다.
제 5장. To Boldly Go Where No Math Has Gone Before
제 6장. 수학은 수학이고 예술은 예술이다. 그 둘은 결코 공존할 수 있다.
제 7장. 준비하고, 숨 고르고, 요리 시작!
제 8장. 음악이여, 고맙다.
제 9장. 수학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 운동으로도 튼튼해질 수 있다. Chapter 9
제 10장. 돈, 돈, 돈
제 11장. 탐욕은 좋은 것이다.

<저자 소개>

바비 시걸 (Bobby Seagull)은 수학자, 교사이자 작가이다. 2017년 영국의 퀴즈쇼 유니버시티 챌린지에 출연해 일약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고 2017년 그의 첫 책『Monk man & Seagull's Genius Guide to Britain』을 출판하였다.

제목: WHEN THE CLOUDS FELL FROM THE SKY
가제: 하늘에서 구름들이 떨어지던 날
저자: Robert Carmichael
출판사: Robinson
발행일: 2019년 8월 1일
분량: 268 페이지
장르: 역사



***아우슈비츠의 어두운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크메르 루즈 대학살 역시 인간이 가진 악의 모습에 대해 보여주는 끔찍한 비극이다. 나는 이 책만큼 무서운 책을 읽은 적이 없다. - 『King Leopold's Ghost』의 저자 아담 호흐차일드**

1967 년 결성된 캄보디아의 급진좌파 무장단체 크메르 루즈 정권은 4 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50 만 이상의 캄보디아인을 학살 했고 전문지식들과 기술자들은 기회주의라는 죄명을 씌워 살해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야만과 살상은 서방에서 《킬링 필드》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전세계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 책은 남편과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십 년 간 고군분투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와 당시 프놈펜에 있었던 악명 높은 수용소 S-21 의 책임자 두크에 대한 재판 과정을 좇아가며 캄보디아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2012 년, 두크는 12,000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크메르 루즈 정권의 수장이었던 폴 포트가 정한 반인륜적인 규칙인 1975-9 법령 하에 죄를 저지른 크메르 루즈 당원들 중 제일 처음으로 구속 되었다. 당시 캄보디아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진적인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었고 이 법령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기아, 질병 혹은 과로로 사망했다. 1975-9 법령은 중국 모택동의 경제 공업화 정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자비한 정책이었다. 크메르 루즈 정부는 캄보디아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고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금지했다. 그들은 캄보디아의 역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했다. 이 극악무도한 정부는 종교, 시장, 돈, 교육을 다 불법화시켰고 가족이라는 개념까지 없애버렸다. 그들이 '혁명'이라고 불렀던 계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무너져버렸고 편집증에 빠진 정부는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 실패한 정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적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국가의 순결성을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한 국가를 완전히 파괴했다.

1977 년, 캄보디아로 돌아온 욱 켓은 수백 명의 다른 귀향자들과 마찬가지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대학살의 공포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젊은 외교관이었던 욱 켓은 '자신의 책임을 보다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받기 위해' 고국인 캄보디아로 돌아오라는 정부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가 파리에 남겨두고 온 프랑스인 아내 마르틴과 두

자녀는 다시는 욱 켓을 보지 못했다. 한편 욱 켓의 사촌 사디는 한번도 캄보디아를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캄보디아에 살고 있다. 저자 로버트 칼마이클은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욱 켓의 가족을 포함한 다섯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캄보디아의 비극과 그 비극이 남긴 상처와 아픈 역사들을 살펴본다. 저자는 몇 달 동안 이어진 두크의 재판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 학살과 관련된 인물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수많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경험이 말해주는 한 국가의 거대한 슬픔의 역사를 들려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삶의 가치에 대해서 되짚어보면서 '내 한 몸의 유익은 유익도 아니고 내 한 몸을 파괴하는 건 아무런 손실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크메르 루즈의 허무주의적 사상을 반박한다.' 한 집단의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많은 개인들의 삶을 짓밟고 한 국가의 역사를 유린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책이다.

<목차 소개>

S-21 수용소를 떠나며: 1979년 1월 7일
1장. 귀향
2장. 사라져버린, 잃은 것
3장. 익숙하지 않은 폭력
4장. 씁쓸한 수확의 씨앗들
5장. 소작농 영웅, 도시의 적들
6장. 사람이 사라지면 문제도 사라진다.
7장. 네 명의 가난뱅이들
8장. 학습 곡선: 1971-75
(이하 생략, 총 16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로버트 카 마이클 (Robert Carmichael)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기자로, 캄보디아에서 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며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야기들을 TV 및 라디오, 신문을 통해 알렸다.

제목 : THE LOST PIANOS OF SIBERIA
가제 : 시베리아와 잊혀진 피아노들
저자 : Sophy Roberts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20년 1월 6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음악, 역사

이 책은 우리가 한번도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바로 미친 듯이 피아노를 사랑했던 러시아 제국의 빛나는 역사로 말이다. 소피 로버츠의 우아한 문장들은 마치 우리가 그녀의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갖게 한다.

1700 년대 후반, 러시아의 캐서린 대제는 1500 년대 이후 서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지만 러시아에서는 아직 그 인기가 덜했던 피아노를 러시아에 들여온 장본인이다. 캐서린 대제는 러시아 음악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고 곧 피아노 생산의 중심지는 런던, 파리, 비엔나를 거쳐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동쪽 지역이 되었다. 이 곳에서 수천 대의 정교한 그랜드 피아노가 제작되었다. 피아노 열풍은 러시아 전역을 사로잡았고 시베리아를 포함한 상상도 못한 지역에까지 도달했다. 세계 대륙의 9 분의 1을 덮고 이 거대한 대륙 시베리아는 꽁꽁 얼어붙은 땅 아래에 선사시대 동물들의 흔적을 보전하고 있었다. 인간도 자연도 살아남기 힘든 혹독한 날씨를 가진 시베리아는 오랫동안 전세계여행자들의 꿈이었고 동쪽과 서쪽 사이의 교차점에는 군대가 지키고 있는 요새가 세워져 있었다. 또한 시베리아에는 야생 호랑이, 곰, 표범 같은 거친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 철도 덕분에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도 연결되어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땅이기도 했다. 이 광대한 땅에 바로 피아노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 러시아에 역사적 혼란기가 찾아오자 러시아의 음악 역시 위기를 맞게 된다. 1917 년 혁명이 일어나자 러시아의 명망 있는 수많은 음악가들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으로 도망 쳤다. 차르 정권이 무너지자 몰락한 러시아 귀족들이나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외국인들이 러시아 땅의 값진 것은 모두 다 외국으로 가져가버렸다. 그들은 코트 속에 진귀한 바이올린을 숨겨 몰래 러시아를 빠져나갔고 시베리아에서 만주로 도망가는 열차 윗부분에는 버젓이 피아노가 묶여 있었다. 1919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유명한 비평가는 그랜드 피아노를 겨우 빵 한 덩어리만 받고 팔아버렸고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 생긴 한 상점에서는 부잣집에서 훔쳐온 귀중한 작품들을 팔기도 했다. 1922 년까지 계속되었던 러시아 내전 기간 동안 수 많은 영주들의 저택이 습격 당하거나 불에 타면서 아름다운 악기들도 화염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이 과정에서 겨우 반정도 살아남은 악기들은 다시 생명을 얻었고 여러 부품을 모아 뒤죽박죽 만든 피아노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 후로 이십 년 뒤, 애국 전쟁 중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부 처리를 한 레닌 그라드의 시신과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악기들을 모두 시베리아로 보냈다. 하지만 머지 않아 다른 동유럽 동맹군들이 피아노를 약탈해갔고 나치군들이 점점 러시아로 다가오자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시베리아 깊은 곳까지 도망치면서 악기도 함께 가져갔다. 사람들이 두고 간 피아노들은 독일군들의 땔감 신세가 되기도 했다.

저자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시베리아의 역사와 사람들, 그리고 음악적 유산과 함께 사라지거나 잊혀졌던 악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름다운 자연 묘사와 기행문, 회고록 형식의 아름다운 산문이 어우러져 시베리아의 신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책이다.

<목차>

작가 노트

제1장. 피아노광 (1762-1917)

1. 잠자는 땅에 흐르는 음악:시비르

2 .눈길에 남은 흔적:카바로브스키.

3 . 시베리아는 '문명화 된' 땅이다: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평양까지

4 . 시베리아의 파리: 이르쿠트스크

5 . 모래가 있는 베니스의 피아노: 키아크타

6 . 쇼팽이 들려주는 폴란드의 소리: 톰스크

7 . 백년만에 돌아온 고향: 사할린 섬

(이하 생략, 총 세 개의 장과 열일곱 개의 챕터로 구성)

<저자 소개>

소피 로버츠는 (Sophy Roberts) 수상경력을 가진 저널리스트이다. 파이낸셜 타임즈, 더 월스트리트저널, 더 이코노미스트등 유수 언론 잡지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있다.